

생각이 다른 與野, 9월 정기국회도 방치하나

‘할 일 태산’ 9월국회

野 ‘국정원 사건’ 先 논의 요구 靑 ‘5자회담’ 고수

결산국회 3개 상임위 野 불참 속 이틀째 파행

정기국회 개원을 엿새 남기고도 여야 정치권이 가파른 대치 정국의 해 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27일 전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 및 특위를 소집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됐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했지만,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회의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교문위는 신학용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잠시 회의를 열었다 산화했고, 외교통상통일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다만, 오례전부터 의사일정이 잡혔던 방송공정상특위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또 제1야당이 민주당이 당장은 결산 심의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데 새누리당도 29~30일 의원 연찬회를 열기로 해 국회법이 정한 결산 심사 마감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달 2일 개최하는 정기국회에서야 결산 심의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국회 역시 초반부터 파행을 겪을 수 있어 결산 심사가 추후 연휴 때까지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여권과 야당이 끝없는 대치로 일관하는 것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 방식을 놓고 양측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한 ‘5자 회담’을 다시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먼저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역제 의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상대를 향한 ‘고함지르기’만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생겼다”면서 “민주당이 조속히 결산 국회에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낮에는 국회, 밤에는 광장 주국야광(晝國夜廣)이 아니라 낮에는 태업, 밤에는 노숙 주태야숙(晝怠夜宿)”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결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여당의 국회 출석 요구는 국민 전환용이자 야당 압박용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 강행은 국민 전환용이며 성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정치 실종’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국회정당화를 촉구하기 위해 27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을 방문해 박지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여의도에 새둥지...새누리와 ‘이웃사촌’

내달 1일 신당사 입주...중앙당 당직자 수 99명으로 줄여

민주당이 중앙당사를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이전하고 다음달 1일 여의도 신(新)당사에서 입주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당사가 입주한 건물은 국회 앞 대산빌딩으로, 새누리당 당사가 입주한 한양빌딩과 마주 보고 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사 규모는 기존 당사 10분의 1이하 수준인 127평”이라며 “의원 1명당 1평씩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축소 이전은 민주당 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당사 이전과 함께 기존 150여명의 중앙당 당직자를 정당법에 맞게 99명으로 줄였다.

당사에는 총무·조직·감사·민원·법률·국민참여 등 주력부서 위주로 입주한다. 당사에 들어가지 못한 부서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본관에 분산배치된다. 당사 축소 이전을 통해 관리 예산을 줄이는 대신 정책 개발 및 입법 지원 예산을 늘렸다고 박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park@

민주당 심크랭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주에 새로운 당사 맞은편의 극동빌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의 작은 기득권이라도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과 어려움을 나누겠다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시작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여의도당사는 당분간 사실상 ‘개점휴업’ 신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park@

민주 전남도당 ‘광주시대’ 마감

전남도청 맞은 편 건물로 이전...30일 개소식

민주당 전남도당이 광주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전남 무안군으로 옮겼다.

2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 북구 유동에 자리했던 민주당 전남도당이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맞은편 건물로 이전하고 오는 30일 오후 4시 개소식을 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수십년 전부터 광주시당과 함께 광주에 자리 잡았

장으로 선출된 이윤석 의원의 공약사 함이었다.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도당은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무안 남악 신도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순환출자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최대 관심

통상임금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이슈도 많아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재계 간 논란이 이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중에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27일 정재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4월 국회와 6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노동관련 법률안 등이 대거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계를 가장 긴장하게 하는 법안은 10개나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중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등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용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률안도 대거 중이다. 지난 6월 국회 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각각 다뤄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재계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이다. 지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이 15%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순차적으로 낮춰 2017년에는 5%까지만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등도 발의돼 있어 재계의 활발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률안도 대거 중이다. 지난 6월 국회 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각각 다뤄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재계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與 초선의원, 민주 천막당사 찾아

김상훈·김종태 등 9명 원내복귀 요청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27일 민주당의 장외투쟁 현장인 서울광장 ‘천막당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조속한 원내복귀를 요청했다.

이현재 의원 등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정회’ 소속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민주당 천막당사를 찾았다.

김상훈·김종태·손인춘·윤병희·이만우·이완영·이재우·하태경 의원이 함께 했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이용득 최고위원과 박지연, 심재권, 설훈, 백재현, 안규백, 박완주, 신장용, 배재정 대변인 등이 이들의 방문 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현재 의원은 “서민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열정으로 이곳에 왔다. 삼

복덕위에 고생이 많다. 함내시라”라고 위로하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며 원내 복귀를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방문에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정국 타개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도록 여당이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격려 방문해 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엄중한 정국에서 천막당사를 찾기에 앞서 청와대에 먼저 가서 대통령에게 사대 해결을 촉구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연 의원은 “3자회담, 5자회담 운운하는 것은 야당을 졸로 보는 태도”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